



링컨은 남북통일로 미국을 바꾸었습니다 노무현은 국민화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링컨은 켄터키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무현은 김해 진영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봉하마을은 "까마귀가 와도 먹을 것이 없어 울고 돌아가는" 동네였습니다.

링컨과 노무현은 둘다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둘다 수많은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원칙과 소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링컨은 하원의원 두번, 상원의원 두번, 네번의 낙선을 겪었습니다.
노무현은 국회의원 세번, 부산시장 한번, 네번의 낙선을 겪었습니다.

링컨과 노무현은 둘다 지역차별과 낡은 정치에 맞서 싸우다 패배를 맛보았지만
끝내 그 역경을 이기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남북통일을 이루었듯이,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은 지역통합·동서화합을 이뤄,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링컨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노무현이 있습니다.

12월 19일, 대한민국은 뜨거운 꿈을 가진
새로운 대통령을 만납니다.



오늘, 노무현과 만납시다

후보연설: MBC-TV 21:50~22:10
찬조연설: KBS1-TV 18:40~19:00

12.12(목)~12.14(토)는 부재자 투표일입니다.
당신의 한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국민의 소리를 들읍시다 1588-2002

이 신문광고는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 새천년민주당

2 국민후보 노무현

34060